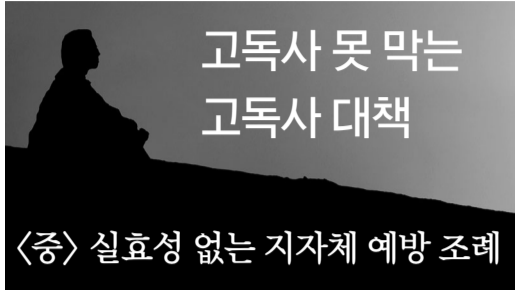


저소득·고령층에 집중...청년·중년층 '사각지대'



정부가 고독사 예방법을 마련하고 광주·전남의 모든 지자체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와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독사는 증가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고독사 관련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고독사 없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내세워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해 연결망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전계층 위험군을 발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도 2021년 5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7월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고독사 발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도 지난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고독사는 되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182명이었던 광주·전남 지역 고독사 사망자 수가 191명(2018년)→214명(2019년)→232명(2020년)→235명(2021년)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광주시·5개구·전남도 제정 시행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위험군 발굴 본인 거부엔 모니터링 대상 제외 광주·전남 사망자 매년 꾸준한 증가 중산·중년층으로 발굴 범위 넓혀야

고독사가 줄지 않는 것은 대책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는 단수·단전·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등 고독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2~3달 요금체납자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단하고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매달 3만 여명이 넘는 체납자 대부분은 고독사와는 거리가 먼 고질 체납자라는 데 있다.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대상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인력낭비만 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도 '지역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다세대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소통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전남에서는 밀집 지역보다 시골의 고독사가 많다.

지자체 고독사 대책은 경제적 어려움과 특정 연령대에 집중돼 있어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에 포함 시킬 수 없다"며 스스로 사회적 고립이 되거나 복지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인 가구 입에도 위험군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주택에서 숨진 월남전 참전용사 A(70)씨는 안부전화 대상자였으나 본인이 서비스를 거부해 숨진 지 10일이 지나야 발견됐다. 지난 7월에도 광주의 한 주택에서 기초수급자 남성 B(59)씨가 홀로 사망해 집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돌봄서비스 대상이었지만 스스로 거부해 지자체가 매일 관리 할 수 없었다. 결국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나 관리시스템이 아닌 집주인에 의해 죽음이 드러났다.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도 해당자가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다.

광주지역 대부분 지자체는 3일 이상 휴대전화 발·수신 기록이 없을 경우 고독사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나 AI스피커 설치(서구),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돌봄서비스 등 정보통신(ICT)을 활용한 정책을 마련했지만 해당자가 거부하면 사용할 수 없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은 관리가 비교적 쉽지만, 중장년 1인 가구와 중산층 등은 관리가 어렵다"면서 "지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대상자들은 대인기피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까다롭다"고 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도 빈번하다. 특히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한 고립 및 은둔 청년과 중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들, 중장년층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1441일만에 문 닫는 선별진료소 18일 오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 정부 방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만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는 지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1441일 만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00억원대 자금 세탁 일당 잡고보니 금덩어리 '우르르'

조폭 끼고 도박자금 세탁 34명 기소 대포통장 계좌 발린 현직의사도 적발

'금 거북이, 금 송아지, 금 돼지, 금 목걸이, 금 팔찌, 고급 명품 시계, 명품 가방과 의류'

검찰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대 도박자금을 세탁한 일당을 적발하고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이다.

이들은 시세가 높고 투자 가치가 높은 금 덩어리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현직 의사도 탈세를 위해 이들의 고객이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34명을 기소(구속 5명·불구속 29명)했다고 18일 밝혔다.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하고 달아난 도박사이트 운영진 4명은 지명수배했다.

구속된 조폭 A(27)씨 등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으로부터 도박자금 세탁 의뢰를 받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총 107억원을 2~3회에 걸쳐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 및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했다.

불구속 처리된 25명은 A씨 등에게 대포통장 계좌 1개당 월 100~150만원을 받고 86개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B씨는 코로나19 환자로 수익이 늘어 세금이 증가하자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대

포통장 계좌를 발린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려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보이소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특정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직접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3억 4500만원, 금송아지 등 200여종의 금붙이, 시가 3억 6000만원의 명품시계·가방 등을 압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세탁 일당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하고, 국제경 등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불법선거운동 포상금 노리다 스토킹 벌금

조합장선거 후보자 배우자 미행

불법선거운동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를 따라다니는 60대 2명이 오히려 벌금을 내게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명화)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B(6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후보자 배우자인 C씨를 따라다니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현장 적발해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를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가 사람들에게 비난봉지를 나눠 준 것을 금품살포행위로 오인해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미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스토킹 의도가 없었고, 불법선거운동 미행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면서 "낮선 차량이 반복적으로 미행하면 여성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단독주택 돌려 우편함 열쇠 찾아 빈집털이 일삼은 30대 구속

우편함에 열쇠를 남겨둔 단독주택만 골라 빈집털이 일삼은 30대가 구속됐다. 18일 광주서부경찰은 광주시 일대를 돌며 빈집털이를 시도한 A(39)씨를 절

도미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주택 문을 열고 범행을 저지르려 들어가던 중 집주인과 마주치자 도주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주택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침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